

박대통령 “세월호 조기 인양”... 실행계획은 없었다

세월호 1주기... 팽목항 방문 분향 못하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
유가족들, 선제인양·특별법 시행령 불만 합동 추모식도 취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을 찾은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여만이다. <관련기사 2·4·6면>

애초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희생자·실종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할 예정이었으나, 가족들이 박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분향소를 임시 폐쇄하고 팽목항을 떠나는 바람에 불발됐다.

이들의 분향소 폐쇄는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양 문제에 대한 논의를 오래 끌었는가 하면 세월호특별법시행령 폐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방파제에서 읽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면서 “희생자와 실종자 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온 국민과 함께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우리는 지난 1년간 겪었던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사고 해역에는 9명의 실종자가 있다.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이라며 “사고 당시의 충격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하루속히 그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배려하고 도와드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상 규명과 관련,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민관합

동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곧 추가적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 배·보상도 제때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발표문 낭독 후 곧바로 청와대로 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한 후 콜롬비아·페루·칠레·브라질 등 중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유가족 요구사항 중 하나인 세월호 인양 문제는 마무리했으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세월호특별법시행령 폐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가 진전되지 했지만, 시행령 폐기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다”고 반발하며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합동 추모식을 취소했다. 추모식에는 희생자 가족과 종교계 대표, 시민 사회단체,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현재까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다”며 “팽목항을 방문한 대통령의 담화내용 전문을 받아봤는데 하나하나 한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에 대한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정성이 결여된 ‘나홀로 추모’라면서 “발표문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 당황스러웠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참석률은 56.1%로 과반을 겨우 넘겼다. 새누리당 김진태·안홍준 의원은 반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담화를 발표한 후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이낙연 전남지사 등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총리 거취” 등 순방 다녀와 결정

박대통령·김무성 대표 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아담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이완구 총리의 거취 등과 관련, “(중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40분간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김 대표가 당 내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대통령에게 전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틀말께 이 총리 사퇴를 포함해 ‘성완종 파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회동에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얘기에는 총리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 되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고 답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與 김무성·이정현, 野 문재인·박지원·안철수...광주서 거리 유세

서구 을 보궐선거 지원 나서

천정배·강은미 등도 지지호소

4·29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6일 본격적으로 시작돼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날인 이날 각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점을 고려해 차별한 선거전을 펼쳤으며, 여야는 첫 주말과 휴일을 맞아 선거운동 초반 기선 잡기를 위해서 당 지도부 등을 대거 투입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이날 세월호 추모기도회 참석을 시작으로 광주시청 분향소

참배, 선거사무소에서의 추도행사 등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에 내려와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17일 대규모 지원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태 후보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은 접은 채 당직자 등과 함께 광주 YMCA에 마련된 분향소를 참배하고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조 후보 측은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오는 18일에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

거구를 돌며 대규모 집중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 당 대표 등 지도부의 잇따른 광주 방문은 선거 초반 광주시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초반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담 뒷밭에서 ‘아담 분향’이 이뤄진 만큼 ‘어게인 이정현’의 신화 재현을 기대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바람’을 차단하고 반드시 ‘뒷밭 사수’를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담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천호선·심상정 국회의원 등과 함께 5·18 국립묘지 참배와 세월호 분향소 참배 등에 이어 선거철

정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무소속 조남일 후보는 품급 사거리에서 운동원 등과 세월호 희생자 추모묵념 후 유세전을 한 뒤 민주노동당이 주최하는 세월호 추모 광주시민대회에 참가, 지지를 호소했다. 천 후보는 여야의 중앙당 지원 유세에도 아랑곳 않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선거일까지 바다 민심 잡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어? 성정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완종 녹취록 내용은? ▶ 3면
또 멈춘 한빛원전 3호기 ▶ 7면

HAPPINESS GOLF &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 로 초대합니다!

시통팔달 광주에서 최단거리 골프장. 남평오거리 5분 | 풍암 농수산물유통센터 16분 | 광주대학교 17분 | 평동산단 19분 | 첨단 하남산단 25분 | 문의. 061)330-5001~4

해피니스CC 회원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5. 3. 13. ~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 (전장 9,651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5차)	모집인원 0명	주중/평일회원	모집인원 00명
■ 입회금액 : 3억 5,000만원 ■ 회원특전 : ▶공통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8회 주말부경보장(1일 1회), 골프탈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배우자·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평일부경권 부여 ▶선택 - A형 - B형 중 선택(1) A형)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50% 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무기명카드1매 발급 : 그린피 50% 할인(연 220회 사용, 1일1회 사용) B형) 정회원 동반2인 그린피 50% 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1일1회 사용) 무기명카드1매 발급 : 그린피 50% 할인(연 365회 사용, 1일1회 사용)		■ 입회금액 : 3,000만원 ■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 그린피 70%선 할인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원납시 : 모든 특전제공 * VIP정회원 및 하트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60%선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하트 정회원	모집인원 0명	해피니스CC 신축 골프텔 GRAND OPEN!! 40객실 보유	
■ 입회금액 : 2억 3,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4회 주말부경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배우자·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일1회)			